

Market Weekly

# check ME up!

2026년 5월 5주차

리서치본부 투자전략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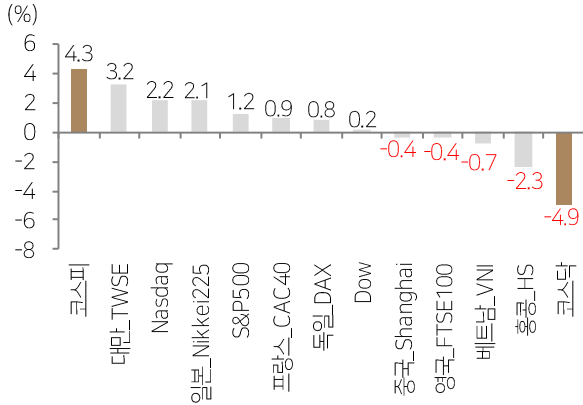
조병현 투자전략 | bhcho@daolfn.com



I . Weekly Review	2p
II . 경제지표 Preview	3p
III .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4p
IV . Key Chart & 핵심지표	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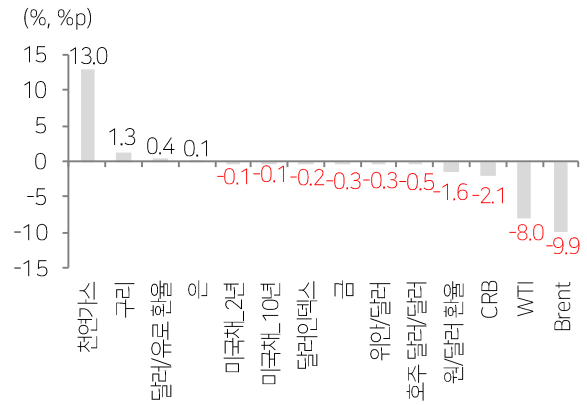
# I. Weekly Review

## 글로벌 증시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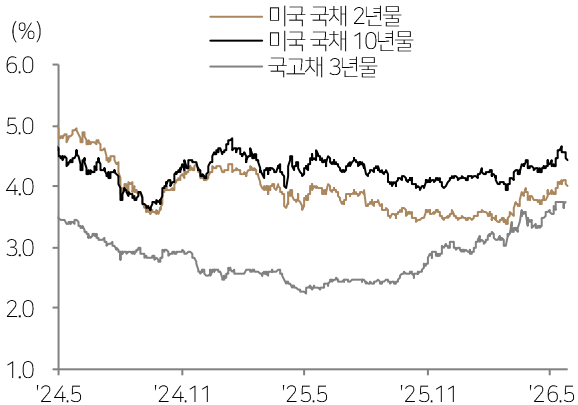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5/22일 대비 5/28일 증가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글로벌 FICC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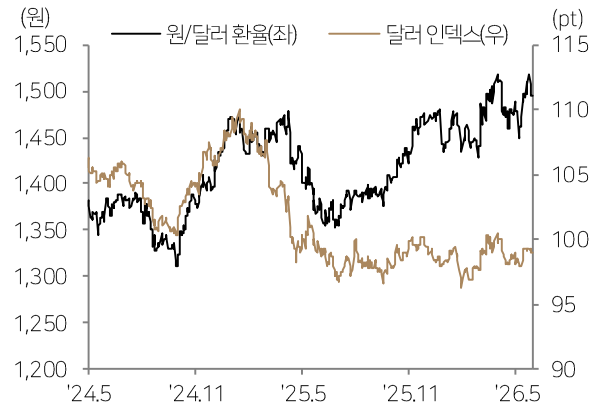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5/22일 대비 5/28일 증가 기준. 미국 국채는 %p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채권 수익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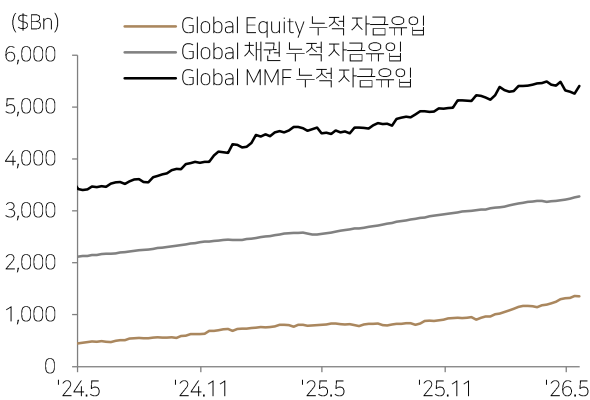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다올투자증권

## 달러 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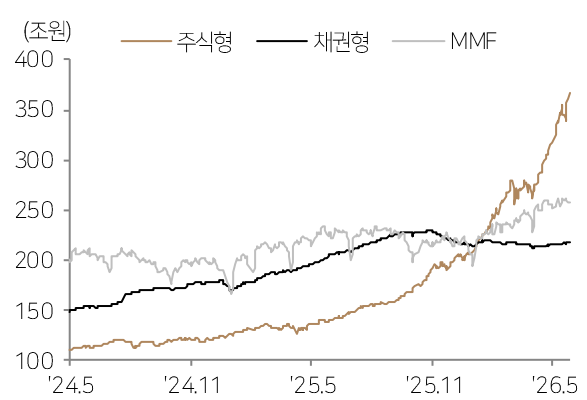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글로벌 펀드 플로우



Source: Refinitiv, 다올투자증권

## 국내 자금동향



Source: Check Expert,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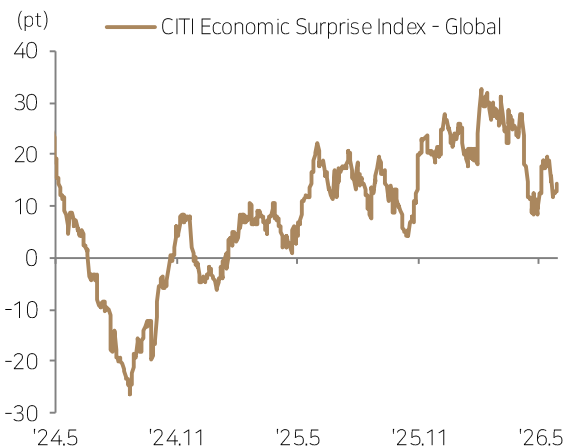
## II. 경제지표 Preview

- 한국도 당분간 물가의 상승세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결국 성장이 물가와 금리의 부담을 상쇄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성장 사이드의 근간은 결국 수출이며 이미 YoY +50% 내외의 증가세가 상당기간 이어지면서 기업 이익이나 내수 확산에 대한 기대를 뒷받침해주고 있음. 예상치 수준의 강한 수출증가세가 확인될 경우 대외 변동성 요인 발생에도 시장의 하방을 지지해 주는 근간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미국의 고용지표도 발표될 예정. 이미 시장 금리가 유가나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 이에 따른 매파적 연준 태도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상황으로 보이는 만큼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정도의 고용지표는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그러나 쇼크나 서프라이즈 여부보다 그 강도가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는 상황일 경우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일자	국가/지역	일정 및 이벤트	단위	예상치	이전치
2026-06-01	한국	5월 수출/입	%yoy	50.7/22.2	48.0/16.7
2026-06-01	유로존	4월 실업률	%	6.2	6.2
2026-06-01	미국	5월 ISM 제조업 지수	Index	53.2	52.7
2026-06-02	한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3.0	2.6
2026-06-02	유로존	5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3.3	3.0
2026-06-02	미국	4월 JOLTS 구인 건수	천건	6,890	6,866
2026-06-03	유로존	4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	2.1
2026-06-03	미국	5월 ADP 고용변화	천건	120	109
2026-06-03	미국	5월 ISM 서비스업 지수	Index	53.7	53.6
2026-06-03	미국	4월(최종) 내구재 수주	%mom	-	7.9
2026-06-05	유로존	1분기(3차) GDP 계절조정	%yoy	0.8	0.8
2026-06-05	미국	5월 비농업고용 변동	천건	93	115
2026-06-05	미국	5월 실업률	%	4.3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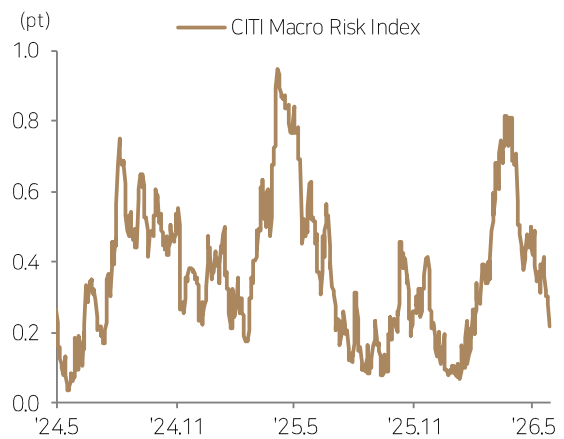
Note: 경제지표 발표일정은 한국시간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III.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일자	국가/지역	중요도	일정 및 이벤트	내용
6/2~5	글로벌	중	COMPUTEX 2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1일 젠슨 황 CEO가 COMPUTEX 기조연설을 진행하며, 6/2~4일 GTC 타이베이 컨퍼런스가 이어짐. 엔비디아는 이번 기조연설에서 컴퓨팅·피지컬 AI·에이전틱 시스템 전반에 걸친 AI 차세대 전략을 공개할 예정</li> </ul>
6/3	글로벌	상	OECD 경제전망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ECD 경제전망 본 보고서 발간 예정. 3월 중간보고서에서는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 충격을 반영해 2026년 G20 물가 전망을 전년 대비 1.2%p 상향한 4.0%로 제시, 글로벌 GDP 성장률은 2.9%로 하향 조정. 한국 성장률은 2.1%에서 1.7%로, 물가는 1.8%에서 2.7%로 조정</li> <li>중간보고서가 전제로 삼은 '에너지 가격 2026년 중반 이후 점진적 하락'이 실제 부합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성장·물가 전망 추가 조정 폭에 주목</li> </ul>
6/3	미국	상	연준 베이지북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월 매파적 FOMC 이후 미국 내 경제지표 해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 베이지북에 담길 소비·고용·물가 표현 강도에 따라 6월 FOMC에 대한 시장 기대가 조정될 수 있으며, 달러화 및 글로벌 위험자산 전반에 영향 가능</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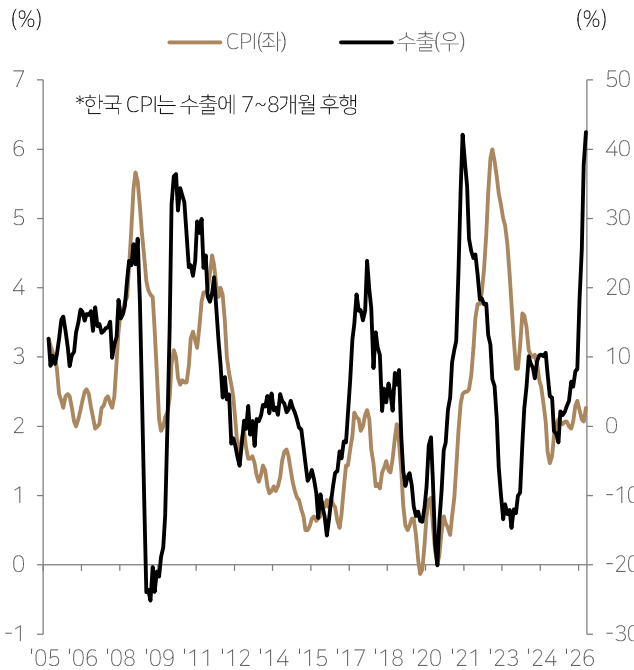
Note: 이벤트 발표일정은 한국 시간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일자	내용
금주 (05/22~05/28) 증시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OSPI(4.3%) 상승, KOSDAQ(-4.9%) 하락. KOSPI는 IT하드웨어(+29.4%), 반도체(+9.2%), IT가전(+2.8%)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기계(-8.8%), 증권(-7.4%), 건설,건축관련(-6.4%) 업종 하락. 주 초반 미·이란 양해각서 체결 임박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기대감 형성.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 유입되며 코스피는 장중 8,400선 돌파하는 등 강세를 이어감. 주 후반 매파적 금통위와 국채금리 상승, 미·이란 군사적 충돌을 재료로 변동성 확대되었으나, 7,840대 터치 이후 저가매수 유입되며 하락분 만회, 주간 기준 상승 마감</li> <li>DOW(+0.2%), S&amp;P500(+1.2%), NASDAQ(+2.2%) 상승. 주 초반 미·이란 종전 협상 기대감 지속되며 매수세 유입.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 전망에 AI·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주도하는 모습. 주 후반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잠정 합의했다는 보도에 3대 지수 모두 최고치 마감</li> </ul>
차주 (06/01~06/05) 증시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쟁 마무리 시 유가는 빠르게 하락할 수 있겠으나 인플레이션 압력은 조금 더 잔존할 수 있다는 딜레마 존재. 현재 유가는 기존 박스권 하단을 하향 이탈 시도 진행 중이며 이와 함께 미국채 금리(10년)도 4.5% 부근으로 하락. 유가 및 금리 부담 완화는 지수 추가 반등을 야기할 수 있는 소재. 그러나 전일 한은 금통위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각국 중앙은행들에서 강해질 수 있음. 연준의 금리 인상 대응이 당장 가시권에 들어올 것으로 보진 않지만 4%대 물가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3분기 초까지는 적어도 기대 인플레이션을 차단하기 위한 매파적 스탠스 우위 가능성 상정. FOMC 등 이벤트가 집중된 6월 중순은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li> <li>단기적으로는 유가와 금리 상방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만큼 금리 부담에 민감했던 일부 순환매 및 코스닥의 상대강도 회복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듯. 그러나 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구간은 아니며 여전히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키 팩터 중 하나로 본다면, 선택지는 여전히 성장이 금리 부담을 압도할 수 있는 AI 밸류체인 내 산업으로 좁혀지게 될 것</li> </ul>

Note: 수익률은 전주 금요일 증가 대비 금주 목요일 증가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 IV. Key Chart & 핵심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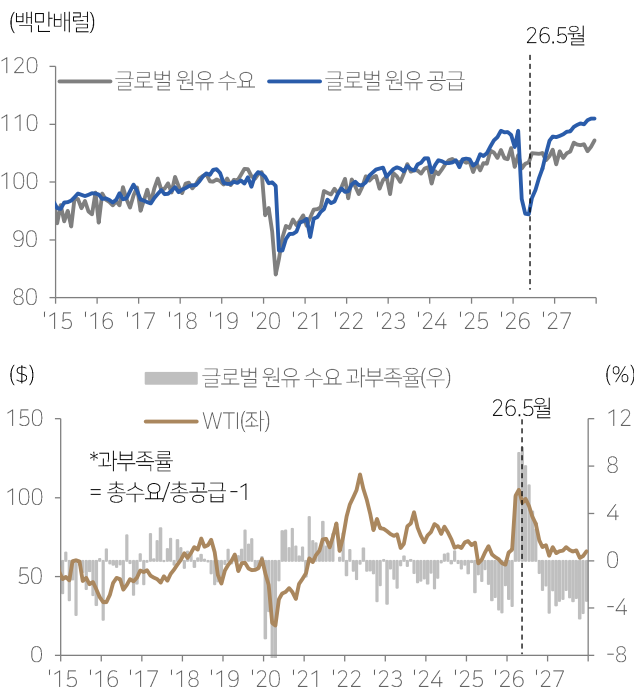
한국 소비자물가는 수출 증가율에 약 7~8개월 후행. 금통위에서도 당분간 물가 대응에 주안점을 둘 것임을 시사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전일 금통위는 매우 매파적이었던 것으로 평가. 무엇보다 반도체 업황 호조에서 파생되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고, 고유가에서 파생된 인플레이션 압력도 언급은 했지만, 경제 전망과 함께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는 뉘앙스. 오히려 반도체 수출이 내수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요 측 인플레이션 동인에 보다 주목하는 모습
- 실증적으로도 한국의 수출 사이클은 소비자물가 사이클에 7~8개월 가량 선행하는 모습이 뚜렷해, 반도체 수출에서 확산되는 온기가 수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추론을 뒷받침
- 현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와 금리의 방향성은 유가의 방향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 즉, 유가 안정 시 시중금리 역시 하락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수요 측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하는 상황인 만큼 당분간 금리의 추세적 하락보다는 높은 영역에서의 등락 경로를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전쟁이 끝나면 유가는 빠르게 정상화될 가능성도 존재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는 은연 중에 자리잡고 있음. 가능성 여부도 점검해볼 필요. 전망치 자체를 맹신하긴 어려우나, EIA의 글로벌 원유 공급과 수요 전망치를 보면, 수요는 큰 변화가 없음. 글로벌 원유 소비는 경제 성장 경로와 비례해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성장에 대한 원유의 수요탄력도가 약해지는 흐름이기도 함
- 반면 공급 측 변동성은 극단적. 전쟁 이후 5월까지 글로벌 원유 공급량은 -13%가량 급감. 산유 시설의 타격 정도에 대한 고려는 따로 해야겠지만, 호르무즈 해협 물류 회복 시 인근지역 비축 재고의 빠른 공급도 진행될 수 있고, 2010년대 중반 이후 감소 협약체 역할을 하던 OPEC의 역지력이 UAE 탈퇴 이후 약화
- 결과적으로 연 중반 이후, 전쟁이 마무리 된다면, 글로벌 원유 시장에서는 공급의 탄력적인 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 전망 경로를 반영한다면, 유가는 연말 70\$대까지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www.daolfn.com](http://www.daolfn.com)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본사업업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27층

**DAOL** 다올투자증권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